

사설

포살법회와 계율지키기

조계종의 중앙 종무행정 기구인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에 근무하는 스님들이 불교회관 5층법당에 모여 포살법회를 열었다. 이날 스님들은 생활이 계율에 입각해 바르게 행해져 청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참회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치하고 종무행정을 하는 스님들이 포살법회를 열것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재세 당시에 많은 일천이백오십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천하를 주유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진리를 설교하시고 계율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들 가운데 깨우친 자가 있으면 중생과 하늘의 인과를 이익을 위하여 전도하려 가라는 말씀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려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중심으로 물려 다니게 되었다. 특히 승가의 비례화는 정착생활을 부정하는 초기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곳에 수행의 공간을 확보하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곳에 모여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이들을 통솔하고 화합시키기 위한 의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살법회이다.

포살법회는 동일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바라제독처에 따라 지난날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바라제독처란 바로 계율을 지켜 놓은 책, 즉 계본을 말한다. 이 바라제독처는 개인적인 규범과 단체생활의 규범이 동시에 들어있으므로 승려 개개인과 승단 내부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포살법회는 보름마다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보름날과 말일에 한곳에 모여 장로를 중심으로 바라제독처를 읽어가면 그 과정에 자신이 해당하는 계목이 있으면 일어나 합장하고

대중들에게 참회를 한다. 이때 殺 盜 欲 妄의 네가지 이외는 모두 용서한다. 살도음망과 교단의 화합을 파괴하는 죄는 중죄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는 엄격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계율에 따라 교단에서 추방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명체를 존중하고 그들이 더불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따라서 교단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교단 추방이며,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는 부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의 표명이다. 그 이외는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좋으면 따르고 싫으면 떠나면 그만인 것이다. 불교사에 배교자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정신의 투영이다. 이런 정신들이 바로 포살법회를 통하여 양양되었던 것이다.

포살법회는 주로 사원에서 스님들이 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정신은 재가신도들에게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재가신도들은 매일 보름 간격으로 3일간씩 8계계를 지키도록 했다. 8재일이 바로 포살법회의 연장이다. 이러한 보살법회가 이제는 안거기간 중이나 몇몇 사찰에서 실시될 정도로 차츰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저간의 실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의 발표에 따르면 포살법회는 각 교구본사까지 확산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전종도가 실현하는 운동으로 전개시킨다고 한다. 사실 포살법회를 행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유신사도임을 공언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극도로 이기화, 개인화, 물개성화되어가는 사회 또는 새로운 사회윤리의 정립이 필요한 사회에서는 포살법회의 정신이 절실하다. 이런 운동이 전종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열린 마당

대통령의 신앙생활

김영삼 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예배참석으로 불거진 대통령의 종교편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처럼 다종교 사회에서 공인으로서 유지해야 할 대통령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때해야 하는지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불교위상 강화에 사부대중 나설 때

김철희 <한국인성개발원장>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 국가에서 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 못지 않게 종교윤리를 중요시 해야 한다.

자칫 나의 종교만을 강조하다가 남의 종교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교인 누구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앙의 해악이 아닐 수 없다. 훌륭한 나라의 통치권자인 대통령

이 종교적 공정성을 지녀야 함은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다.

집권 초기부터 예배보는 장면을 심심찮게 언론 지상에 공개해더니 이제 다시 대통령의 종교활동이 타종교의 불평함을 만들어 냈다. 물론 피해



를 입은 종교는 불교이다. 불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얼마나 불교의 위상을 세우지 못했으면 군법당에 신도들이 갇혀 있어야 하는가. 경호상의 문제로 한 종교의 신자를 불편하게 하는 당국도 문제지만 불자들의 무기력도 문제다. 이번 기회에 불자들이 대통령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자. 다종교 사회의 대통령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종교는 바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임을 가르쳐 주자.

국민화합 깨는 행위 묵과할 수 없어

한순자 <군경미안학회 사무국장>

기독교인 장병도 내 부하요, 불자장병도 내 부하인 것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역할이 아닐까.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었을까,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종교선터를 이루고 있는 국방부에서 기독교 장병만을 격려하고, 불자들은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종교참여의 자유까지 침해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역사바로 세우기를 주창하고 있는 김대통령의 구호는 허울 좋은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불교가 이 나라의 민족문화 계승하고 민중을 위하여 힘써온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의 형평성 없는 종교정책



은 불교의 위상을 훼손하는 비정치적 결과를 낳았다. 물론 대통령에게도 신앙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제 불교는 정권으로부터 벗어나 자주화를 위해 힘써 나가야 하는 역사의 길목에서 있다.

불교인들은 이제 불교의 자존심 회복과 대통령의 편향된 종교정책이 시정될 수 있도록 단합된 자세를 보여야 하며, 더 이상 국민화합을 깨는 처사가 없도록 이번 사건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통령은 공인...종교 중도입장 필요

하재길 <대학불교연맹 회장>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특정집단에 치우쳐서는 안되는 공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특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인 만큼 한 종교에 치우침이 없는 중도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초부터 한국병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특정집단의 이기주의와 지역감정 등의 근

절을 공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신한국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이 한말에 대해 먹칠을 해오고 있다. 친성향적인 인사행정, 청와대 예배, 부활절로 인한 검정



고시일 변경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국민화합과 이기주의의 배척을 외치는 대통령이 타종교를 믿는 장병들은 외면하고 기독교 장병들만을 위로하는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편향적인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항상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잊지 말고 치우침이 없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기대하며 이번 국방부 종교선터의 불찰에 대해 국민들에게 성의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PC통신에 '대통령 종교편향' 비난 잇따라

정말 해도 너무 하는군요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대통령이 예배를 본 것은 아무리 개인 신앙행위로 합리화 한다면 해도 타종교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이 조계종에 사과를 하러 간 1월30일에는 대통령이 공식자들에게 "공무원은 개혁의 전도사다"라고 했다는 TV뉴스를 봤다. 다음날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다. '대통령은 공인이다'라는 사실은 국민학생도 다 알 것이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행동이나 언어로부터 벗어나 자주화를 위해 힘써 나가야 하는 역사의 길목에서 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대통령의 종교편향 소식을 듣고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그런 행태는 일으키지 못했었는데. 아마도 이 나라가 민주화를 많이 부르짖다보니 김 대통령이 독일인줄 착각했나 봅니다.

세상에 자신이 어느나라 대통령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경우도 다 있군요. 아마도 자신은 기독교 한 국가의 총재인줄 아시겠군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자신만을 알고 행동한다면, 먼저 자신 선배들의

교훈도 모르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지요.

남의 종교 중시하는 마음

합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다스리고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려고 한다면 이 나라에 법이며 지도자며 질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민의 평등한 한표 한표로 국가의 통치원수가 되어 국가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로 국민 앞에 서야 했던 지도자가 자신의 개인적 종교편향으로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우리를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개인의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 처럼 종교에 대한 생각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또 특정 종교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열원해 본다.

국민갈등 조장하는 처사

이제는 소리를 모으고 힘을 모아 일어서야 할 시기가 아닌가요? 국민의 대통령으로 올바르게 서야 할 나라의 지도자가 개인적인 행보로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특정종교에 대한 개인적 편향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며, 국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종교로 또는 지역으로 국민갈등을 조장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도 북한 이 때에 김대통령의 불평등한 종교편향을 규탄합니다.

현대만화



마음으로 바로 보아야...

목어

서늘대 인문계 수석을 차지한 장승수(張承守·25)씨의 인간승리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 사연은 새 봄을 여는 환희의 송가였다. 마치 조춘의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처럼 희망, 용기, 의지, 꿈, 인내, 성실, 그리고 인고의 결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막노동 6년에 3차례의 실패를 딛고 영광을 안은 장씨. 그는 쉽게 포기하고, 한탕주

의에 길들여지고, 인기에 영합하며, 빨리 승부를 내려는 오늘의 젊은이들보다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웃길 여유를 했다.

11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

"이제 봄입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본 장씨는 대학진학을 접어두고 돈벌이에 나섰다. 노동관의 잡역부, 택시기사, 신문·가스통 배달 등 고달픈 삶의 현장을 뛰면서 그는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 동생의

학비(고려대 3년)를 대느라 자기 공부를 뒤로 미룰 정도로 그의 가슴은 파듯했다.

"끝내 좌절하지 않은 덕분에 이런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맘과 눈물에 젖은 장씨의 합격증은 그대로 우리사회의 거울이다.

마음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정상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또 한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22일 강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시각장애인 길인배(吉仁·51)씨. 그는 6살때부터 앞을 못보았다. 그러나 그는 슬한 고난을 이기고 박사모를 썼으며 이제 또다른 꿈에 부풀어 있다.

이같은 결실은 씨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2월4일은 입춘이다. 봄이 시작되면 밭을 갈고 씨뿌릴 준비를 하는 농부처럼 우리 모두 마음밭을 췌겨보자. 돌과 자갈이 있으면 골라내고 희망과 용기와 인내가 가득한 건설한 씨앗을 심자. 부처님께서도 "나도 밭갈고 씨뿌린다"고 말씀하셨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어버이는 '여래'

우리가 본래 마음으로 소망한 적이 없어도 깨달음의 보물 창고는 저절로 얻어지니, 부유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것이다. 아버지는 곧 여래이시고 우리는 불자이니 여래는 항상 우리를 아드·딸이 라고 말씀하셨다. <법학경 제4 신해론>

도솔회 회장 이정희

1996학년도 동방불교대학 신(편)입생 모집요강

(佛敎學科 · 梵唄科 · 佛敎美術科) 4년제, 2년제 및 통신과정 병설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4년제 대학교육체제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있는 불자들의 입학의 바라고 있습니다.

1. 모집과 및 모집인원

학과	교육내용	모집인원	비고
불교학과	불교포교와 불교경전을 교육	60명(통신생포함)	4년제
법과	불교의식론 및 전통불교의식인상주권공을 교육	15명	2년제
불교미술과	전통불교미술 교과를 교육	20명	4년제

2. 응시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2) 불교 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
-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 (1) 필기시험(불교상식, 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및 면접(공통)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1월 15일 ~ 2월 23일

(평일은 10:00 ~ 17:00까지, 토요일은 14: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5. 전형일자 : 1996년 2월 25일 (일) 10:00 ~ 18:00

6. 전형장소 : 본 대학 강의실 및 실기실

7.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8.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소정양식) 1통
-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4) 주민등록 등본 1통
- (5)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통
- (6) 반명함판 사진 6매
- (7) 전형료 : 30,000원 (단, 불교미술과는 40,000원)

9. 참고사항

- (1) 본 대학 이수자엔 태고종단의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함.
- (2) 불교학과 법과과는 18:00 ~ 21:00까지 강좌 개설하고, 불교미술과는 14:00 ~ 19:30 사이에 강좌를 개설함.
- (3) 통신생은 월 1회 1박 2일 출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4) 남학생 기숙사 운영 (지방학생은 문의 바람)

10. 기타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 (2) 제출서류 중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해도 됨.
- (3) 우편을 이용하여 입학원서를 교부받고 접수할 수 있으나 전형일에는 반드시 본인 참석하여야 함.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편입생 모집요강

1. 응시자격

- (1) 본대학 2년 수료자
- (2) 강원 대학교 수료자
- (3) 4년제 또는 2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불교미술과는 미술대학 졸업자)
- (4)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2. 기타

- (1) 응시자의 수학 경력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토록 함.
- (2) 4년제 이수자에게는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태고종단 승려에게 중덕법계를 풍수함.
- \* 원서교부 등 기타 사항은 상기 신입생 요강에 준함.

원서교부 및 접수처

- (1) 본 대학 교학처 ☎ 763-0229, 8536
- (2) 태고종 총무원 ☎ 745-2030 ~ 2
- (3) 태고종단 각 교구 총무원
- (4) 경서원 (조계사 앞) ☎ 733-33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